

“광주시·전남도 심의위 구성, 기업대출 지원 나서야”

—실물경기 침체에 따라 지난해보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지역경기를 전망하신다면?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경제도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경제의 기반인 자동차·가전 등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라 제조업 전체의 성장률 둔화가 우려됩니다. 그나마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과 여수 엑스포 등과 관련한 SOC 공사 등으로 공공건설 부문이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돼요. 상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가 활성화될 경우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기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내 모든 경제주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박성수 한국산학협동연구원장=당분간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겠지만,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또 경기활성화를 염두에 둔 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에 정부재정의 조지집행이 이뤄질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리라 봅니다.

—기업들이 고전하면서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고용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원장=고용문제가 심각해요.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감 나누기(job sharing)’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내부에서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근로자가 ‘일감 나누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용특별대책기간’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고용효과를 확대하는 부문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이죠. 이들 부문을 육성해야 기업생태계가 풍부해지고, 고용창출효과도 커집니다.

▲이 회장=구조조정은 기업이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면 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라 진행돼야 합니다. 한 기업이 당장 힘들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인력을 해고한다든지, 신제품 개발을 중단한다면 그 기업은 회생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할 수도 있죠.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지원을 위한 감세, 규제완화 등 실질적인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근로자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기업의 비전홍보 및 고용안정성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을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소비침체로 지역중소기업들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제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이 회장=무엇보다 우리 지역제품을 지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 광주상의는 광주시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범시민적인 제품사주기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제품사주기운동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민 전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

경제전문가들에 듣는 2009 경제 활로

지역경제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

서울대 건축공학과 졸업, 삼승건설 대표, 송촌종합건설 회장,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위 후원회장, 한중문화협회 수석부총재,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공동대표



박성수 산학협동연구원장

전남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객원교수, 전국 국공립경영대학장 협의회장,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전남도 투자유치전문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경제도 뿌리째 흔들렸다. 이같은 어려움은 올해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다. 광주일보사는 경제전문가의 신년대담을 통해 올해 지역경제와 국내·글로벌경제에 대한 전망을 듣고 활로를 모색해본다. 지역경제 분야는 이승기 광주상공회의소장과 박성수 한국산학협동연구원장(전남대 교수), 국내·글로벌경제 분야는 박현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과 김규영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가 진단했다.

불황기 고용 문제 해결, 근로자들 ‘일감 나누기’ 내부 합의 중요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 지속 추진...지역기업 브랜드 파워 높여야

역의 기업을 살리고 제품의 질을 높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박원장=최근 제품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요소는 공급이러기보다, 소비측면에서의 브랜드와 소비자의 평판입니다. 브랜드를 개발하지 않고서는 제품판매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지역기업들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지역에서 설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야죠. 나아가 마케팅연구소를 설립, 지역

기업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문턱은 너무 높기만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갖고도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견해는?

▲이 회장=지난해 12월 광주상의 주최로 지역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3개 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지역기업에 대한 총액

한도대출을 증액하기로 약속했으며 광주·국민은행, 농협 등도 중기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과 기보는 부분보증비율을 당초 85%에서 95~100%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각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조만간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업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과도한 대출담보 요구 및 대출금 조기회수 자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역배정액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봐요.

▲박원장=광주상의 노력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체에 광주시나 전남도의 주도 아래 기업대출심의위원회를 설립, 기업의 상황에 따라 대출을 심의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대출작업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적절한 요율의 보증을 만들어 지자체가 가입하고, 보험을 통해 손해부분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관통하려면 기업들에게 신제품·기술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장=기술개발에 대한 지역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안타깝죠. 이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우선은 지역연구소의 연구능력을 대폭 확충, 정책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지역의 산업정책 가운데서도 핵심기술 개발관련 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잘 정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지자체를 비롯한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과 지원정책을 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국가의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이뤄진 다음 지역의 역량을 고려해 기술개발의 방향과 범위에 대한 사전연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회장=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첨단지구 일대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광주와 전남 장성군 일원 4천300만㎡의 부지에 60여개의 연구·출연기관, 4개의 대학, 1천200개의 기업이 입주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이 특구가 지정될 경우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국비·지방비·민자유치를 통해 4천700여억원을 재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재원으로 연구개발·기술사업,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칼리지폴리스 조성, 사이언스파크 조성 등 4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우리 지역은 신제품·신기술 개발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광주상의는 광주R&D특구 지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등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이 미증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회장=건설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조기발주를 통해 어려운 지역건설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 지역내 발주공사에 있어서 지역업체 수주비율을 높여주고, 공사비 적기 지급과 관급자재 공급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박원장=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교토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폭포-완도-제주도의 해저터널공사가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천정비사업 역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에 적지않게 도움을 주리라 기대됩니다. /정리=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2010학년도 대학 재수 선형 학습반 모집안내

개강: 2009년 1월 22일(월) 1차 재입학 및 2차 재입학

대상: 선형학습반에 한하여 선형수학 부서별 1학년 재수생 및 재입학, 2학년 재수생 등 재입학 가능 학생

과정내용: 2009년 2월 15일 1차 선형수학 재수생부터 1학년·2학년·3학년 재입학 가능

특징: 1. 2009년 1월 22일 개강
2. 선형수학 재수생·재입학 학생의 학습·생활 지원
3. 선형수학 재수생·재입학 학생의 학습·생활 지원
4. 선형수학 재수생·재입학 학생의 학습·생활 지원
5. 선형수학 재수생·재입학 학생의 학습·생활 지원
6. 선형수학 재수생·재입학 학생의 학습·생활 지원
7. 선형수학 재수생·재입학 학생의 학습·생활 지원
8. 선형수학 재수생·재입학 학생의 학습·생활 지원

호남한성학원